



생강의 황금시대, 코로나19로 카자흐스탄 생강가격 폭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더불어 백신개발 시기도 불확실한 가운데 마늘, 녹차, 다시마 등 코로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식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예외가 아니다. 생강이 코로나 예방에 특효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나날이 생강 가격이 치솟고 있다.

카자흐스탄 생강가격 동향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누르술탄에서는 kg당 평균 900~1,500테нге(한화 약 2,500~4,120원)이던 생강뿌리 가격이 3월 말에는 kg당 평균 5,500테нге(한화 약 15,200원)로 3배 이상 올랐다. 카자흐스탄 남서부의 약타우에서는 1,500테нге(한화 약 4,120원)에서 10,000테нге(한화 약 27,700원)까지 급등하였다. 카자흐스탄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3월 말 전체 식품 가격이 15% 가량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비례한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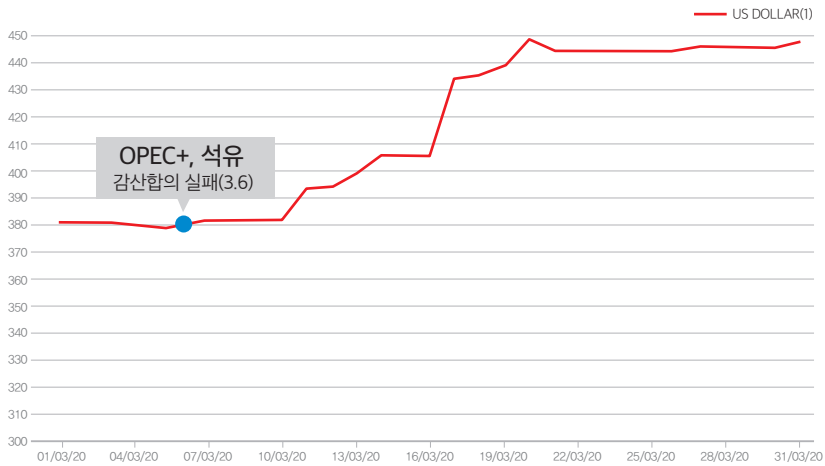
예로부터 생강은 소화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심혈관 기능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감기의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어 평소 생강차를 만들어 먹거나 생강가루를 향신료로 쓰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는 생강을 활용한 태국식 스파까지 있을 정도다.

이 와중에 3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SNS 등 온라인에서 생강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특효약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생강 사재기가 심해지자 WHO 마이클 라이언 긴급대응팀장과 현지 전문가들은 생강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

출처 : ❶ Newtimes, 『Дороже, чем говядина: В Казахстане взлетели цены на имбирь, лимон и чеснок』 (20.4.2) - <https://newtimes.kz/obshchestvo/107880-dorozhe-chem-goviadina-v-kazakhstane-vzleteli-tseny-na-imbir-limon-i-chesnok>
❷ 24, 『Имбирь и лимон не лечат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20.4.2) - <https://newtimes.kz/obshchestvo/107880-dorozhe-chem-goviadina-v-kazakhstane-vzleteli-tseny-na-imbir-limon-i-chesnok>
❸ Tengrinews, 『Расчетный курс доллара на 2020 год определен в Казахстане』 (20.4.2) - https://tengrinews.kz/kazakhstan_news/raschetnyy-kurs-dollara-na-2020-god-opredelil-kazakhstan-397055/

[3월 카자흐스탄 환율 동향]



출처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았다. 오히려 일일 권장량인 4g을 초과하여 섭취할 경우, 복통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권고 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현지 언론은 생강 값의 폭등은 높아진 수요에도 원인이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농산물 수입 애로와 유가 하락에 따른 자국 화폐 텡게화 가치 절하 등 공급적인 측면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다.

2019년 Global Trade Atlas(GTA)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신선 생강 수입국은 중국, 브라질이나 중국산이 총 154만 7천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99.7%에 달한다. 반면 으깬 생강 수입국은 인도, 라트비아, 터키 등으로 더욱 다양하며 인도산이 총 2만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74.1%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가 간 식료품 거래는 가능하나 중국을 비롯해 인근 국가 간 국경 일부 차단, 국제선 운영중단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전에 비해서는 생강 수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유가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도 수입금액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으로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 OPEC 회원국 간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 소속국가이다. 지난 3월

석유 감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배럴당 60달러에서 20달러까지 추락하였고 그 결과 카자흐스탄의 환율은 2월 평균 377.8텡게에서 3월 평균 415.3텡게로 9.9%나 올랐다.

향후 전망

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을 믿는 다수의 소비자들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 상황에서 생강에 대한 인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OPEC 국가 간 석유 생산량에 대한 합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카자흐스탄 경제부 장관이 2020년 4~12월 평균 유가를 배럴 당 20달러, 평균 환율을 440텡게로 예측한 만큼 당분간 '금값 생강'의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Key Point

생강 인기에 더불어 한국산 생강차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생강차 취급 바이어에 의하면 3월경부터 생강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유자차 판매량을 앞질렀다고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산 홍삼, 흑마늘, 양파즙 등 다양한 건강식품의 신시장 진출 기회를 노려보면 좋겠다.

출처 : ① Nur, 『Имбирь подорожал до 10 тыс. тенге в Казахстане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20.3.31] - <https://www.nur.kz/1848058-imbir-podorozal-do-10-tys-tenge-v-kazahstane-iz-za-koronavirusa.html> ② КТК, 『Имбирь взлетел в цене в 10 раз, но стоит ли тратиться』 [20.3.30] - <https://www.ktk.kz/ru/news/video/2020/03/30/143547/> ③ Tengrinews, 『Цены на имбирь взлетели в нескольких городах Казахстана』 [20.3.29] - <https://tengrinews.kz/story/tseny-na-imbir-vzleteli-v-neskolkih-gorodah-kazahstana-396491/> ④ Informburo, 『Курс тенге и коронавирус. Как дорожали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20.3.27] - <https://informburo.kz/stati/kurs-tenge-i-koronavirus-kak-dorozhali-produkty-pitaniya-v-kazahstane.html> ⑤ Nur, 『Чем полезен имбирь для человека』 [18.10.18] - <https://www.nur.kz/1722390-cem-polezen-imbir-dla-celoveka.html>